昌 출마 초읽기…대선 3자 구도 재편 전략 부심

李, 독주 굳히기 鄭, 이이제이

〈以李制李〉

李 "정권교체 방해" 鄭 "부패 쌍둥이"

이회창 한나라당 전 총재의 출마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 진영 뿐 아니라 대통합민주신당의 정동영 후보 측도 대선 전략 수정에 들어갔다. 두 후보 모두 양자대결 구도에서 삼각구도로 대선 구도를 바꾼 상황에서 대응 전략에 부심하고 있는 것이다.

◇**이명박 후보 진영**='이회창-정동영'의 3자 구도 내에서도 현재와 같은 독주 체제를 유지할 수 있는 전략을 본격적으로 가다듬고 있다.

이 후보의 선대본부장인 이방호 사무총장은 4일 "이 전 총재가 대선에 나온다는 전제 아래 이미 내부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이 후보 측은 이 전 총재가 출마해도 이 후보의 대선 승리는 변함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물론 이전처럼 50% 이상의 지지율을 유지할 수는 없지만 선두 유지는 변함이 없다는 전망이다. 또한 한나라당 지지자들의 정권 교체 열망이 그 어느 때보다 강한 만큼 무소속 또는 '보수신당'의 후보인 이 전 총재를 오히려 배척할 것이라는 게 이 후보 측의 기대섞인 분석이다.

정병국 홍보기획본부장은 "이 전 총재가 출마한다고 해도 이명박-정동영-이회창이 40대 20대 20 정도로 지지율 구도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같은 분석에 따라 이 후보 측은 출마 선언 직후부터 이 전 총재가 한나라당의 정권교체를 방해하는 '최대 장애물'임을 적극 홍보한다는 전략이다. 이 전 총재가 이념적으로 '강경보수' 성향인 만큼 중도 보수표를 끌어안지 못하는 '경쟁력없는' 후보라는 점도 지적할 방침이다.

한나라당 일각에선 이 전 총재가 출마하면 오히려 이 후보를 도와주는 격이 된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경준씨의 귀국설로 BBK 주가조작 연루의혹이 주요 이슈가 될 뻔했지만 이 전 총재의 출마설에 묻혀버린 것과 같이 범여권의 네거티브 공세를 이 후보의 출마가 오히려 완충하는 결과가 될 것이란 주장이다.

◇**정동영 후보 측 등 범여권**=이 전 총재가 출마설과 함께 단숨에 여론지지율 20%대로 뛰어오르면서 대선정국의 '태풍의 핵'으로 부상하자 가뜩이나 낮은 지지율에 고심하고 있는 대통합신당 정동영 후보 측은 당초 기대했던 '이-정' 양자대결 구도가 '이-이' 구도로 변화될 수 있다는 점에 우려를 보내고 있다.

하지만 이 전 총재의 출마가 이명박 후보에 대한 검증공세에 추진력을 더하면서 이 후보 독주체제를 파괴시키고 한나라당의 분열을 촉발한다면 '대역전'의 계기로도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 내심 기대를 걸고 있다.

정 후보측이 구상하고 있는 '창풍(昌風)' 대응전략은 '이이제이(以李制李)'. 즉 이 전 총재를 지렛대로 BBK 주가조작 및 도곡동땅 차명보유 의혹 등의 약점을 안고 있는 이명박 후보를 확실히 무너뜨린다는 것. 이 전 총재가 출마한다면 그가 이 후보의 각종 의혹에 대해 거센 공세를 펼칠 수 밖에 없을 것이고 이는 정 후보의 공격보다 이 후보에게는 더욱 큰 상처로 다가올 수 있다는 추론에서다.

정 후보측은 다른 한편으로는 이 전 총재에 대해 '대선자금 차떼기', '아들 병역면제 의혹' 등을 재론해 부패 후보로 '낙인찍기'를 계속한다면 극적 역전승을 낚을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민주당 이인제, 창조한국당 문국현 후보는 더욱 고민스럽다. 그렇지 않아도 언론 노출빈도가 낮아 불만이었는데 그 기회가 더욱 줄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민 관심을 끌기 위한 묘안 찾기에 부심하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민주연대21' 소속 회원들이 4일 서울 이회창 전 총재 집앞에서 대선 불출마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반영도 안할 여론조사 왜 했나

전남 시·군의회 의정비 부정적 여론 불구 인상

전남 지역 일부 시·군의회가 내년도 의정비를 대폭 올리는 과정에서 이를 반대하는 주민 여론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내년도 의정비를 50% 이상이나 올려 책정한 목포, 여수, 나주시 의회의 경우 의정비 인상·동결 여부와 인상 폭에 관한 주민 여론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결정을 내려 여론조사가 요식행위에 불과했다는 지적이다.

4일 나주시가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의정비 동결이 바람직하다고 본 주민이 54.8%에 달한 반면 4천만원대까지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답한 주민은 10.8%에 불과했다. 이같은 주민여론에도 불구하고 시의회는 의정비를 올해 2천568만원에서 4천500만원으로 75.2%나 인상하기로 했다.

목포시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현재 수준의 의정비가 적정하다고 보는 주민이 48%로 가장 많았고 현 수준도 많다는 응답이 36.4%, 적은 편이라는 응답은 7.8%에 그쳤다. 그러나 시의회는 2천580만원에서 4천100만원으로 58.9%의 대폭 인상을 결정했다.

의정비 인상에 찬성한 주민들도 적정 인상 폭에 대해서는 60.2%가 200만~250만원 인상이 적정하다고 봐 1천500여만원을 인상한 시의회의 결정과는 큰 차이를 보였다.

여수시의 경우도 마찬가지. 여론조사 결과 2천741만원인 현재의 의정비가 적은 편이라는 응답은 7.9%에 불과했고 적정하다는 응답은 41.4%, 많은 편이라는 응답은 46.8%에 달했는데도 시의회는 4천100만원으로 대폭 인상을 결정했다.

더욱이 이번 여론조사에서 평소 의원들의 의정 활동에 대한 주민들의 만족도도 낮고 의정비 인상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여론이 지배적인 상황에서 의회가 의정비 대폭 인상을 강행한 데 대해서는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여수시의회의 집행부에 대한 견제·감시 역할에 대해 52.2%가 '그저 그렇다'고 답했고 24.8%가 '잘못하고 있다'고 본 반면, '잘 하고 있다'는 응답은 12.1%에 그쳤다. 나주시의 경우도 '의원들의 의정 활동이 지역에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별로 혹은 전혀 도움이 안된다는 응답이 46.8%나 됐다.

여수시민 김모(52)씨는 "여론조사 결과가 비록 참고사항이라고 하지만 여론조사 결과와 무관하게 의정비를 마구잡이로 올리려면 뭣 때문에 돈들여 여론조사를 하느냐"며 "이번 기회에 의정비 산출 방식을 전면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치경기자 unipark@kwangju.co.kr

/나주=정칠현기자 chjung@

'朴心' 기필코 잡아라

李후보 만남 추진…이재오 발언 사과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후보가 두 전직 당수 '달래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회창 전 총재에 대해서는 "정권교체라는 대의를 위해 출마의 뜻을 접어달라"는 호소를, 박근혜 전 대표에 대해서는 "당 화합에 협조해 달라"는 당부를 하고 있는 것.

외견상 이 후보는 '잠재적 대선경쟁자'로 부상하고 있는 이 전 총재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듯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박 전 대표 다독이기에 더 신경을 쓰고 있다는 후문이다. '박심(朴心)'만 확실히 잡으면 이 전 총재를 자연스럽게 주저앉힐 수 있다는 이른바 '이박제창(以朴制昌)' 전략이다.

지난 3일 밤 강재섭 대표가 예정에 없이 당 최고위원들을 긴급 소집, 시내 한 식당에서 만찬회동을 가진 것도 이 후보의 이런 뜻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이 자리에는 최근 한 언론인터뷰를 통해 "아직도 경선중인 걸로 착각하는 세력이 당내에 있다. 이들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해 당내 분란을 일으켰던 이재오 최고위원이 참석해 자신의 발언에 대해 사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최고위원은 4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도 "내 오만과 독선을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다시 고개를 숙였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2일 밤에도 이재오 최고위원을 직접 불러 "당이 화합해야 할 때인데 자신의 생각을 말한다 하더라도 듣는 사람들의 감정을 상하게 해서야 되겠느냐"며 호되게 꾸짖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이 최고위원은 5일 오전 열리는 의원총회에서 공식적으로 사과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해졌다.

이 후보는 박 전 대표와의 면담도 계속 추진하고 있다. 박 전 대표의 한 핵심측근은 4일 "이 후보측에서 만나자는 연락을 해왔으나 아직 구체적인 일정 협의가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昌의 사람은' 누구?

2002년 선대위 핵심 관계자들이 중심

심대평 후보·강삼재씨 출마땐 도울 듯

"주변에 사람이 누가 있나." "선언만 하면 구름처럼 몰려들거다."

한나라당 이회창 전 총재의 대선출마가 기정사실화됨에 따라 주변에서 보좌할 측근들이 누가 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전 총재가 지난 97년과 2002년 한나라당 후보로 두번의 대선을 치렀던 만큼 사실상 당 소속 국회의원 대부분이 그와 어떤 형태로든 인연을 맺은 것이 사실이다. 이명박 후보의 최측근인 이재오 최고위원도 이 전 총재를 지근거리에서 보좌했고, 이 후보 특보단장인 권철현 의원도 과거 비서실장을 지낸 인연으로 이 전 총재와 자주 식사를 함께하는 사이였다.

박근혜 전 대표측의 김무성 의원과 유승민 의원은 당시 각각 비서실장과 여의도연구소장으로 중요 역할을 담당했었다.

그러나 현재로선 어느 쪽에서 활동했더라도 현역 의원들이 이 전 총재를 드러내놓고 돕기는 어려울 전망이며, 이 전 총재가 탈당을 할 경우 이는 더욱 어려울 것이란 게 대체적 전망이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양정규, 하순봉, 김기배, 신경식, 최돈웅 전 의원 등 2002년 선대위 핵심 관계자들을 중심으로 조직된 '함덕회'의 경우 이 전 총재가 출마를 선언하면 돕지 않을 수 없다는 시각이 많다.

서울대 모 교수 등 현직 교수들을 중심으로 전직 특보단 가운데 핵심 인사들도 이 전 총재와 교감을 가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국민중심당 심대평 후보의 경우 이 전 총재에 대해 호의적 입장을 밝히고 있고, 지난주 이 전 총재와 독대한 강삼재 전 사무총장도 도울 것이라는 추측이 나온다. 여기에 정인봉 변호사와 백승홍 전 의원도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구범회 전 한나라당 총재 언론특보 등 공보 담당 실무진도 상당 부분 구성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경선 기간 박 전 대표측에서 활동했던 인사 가운데 일부도 공보팀 합류 제안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에서는 특히 꾸준히 옆에서 보좌해온 이흥주 특보와 지상욱 박사, 수행비서인 이채관씨 등 가신그룹 외에 연세대 국제대학원교수로 있는 장남 정연씨와 차남 수연씨, 로펌 김&장에 있는 사위 최명석 변호사 등을 주목하고 있다. /연합뉴스